



VALUE INVEST KOREA

2017년 08월 셋째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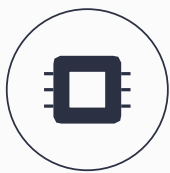
빅팟게임즈



문정아 중국어



헤드플레이



eWBM



포켓모바일



VENTURE STORY



형님모바일, 무협 모바일게임 독보적 1위

■ 팡스카이 '형님모바일', 원스토어 무료베스트 1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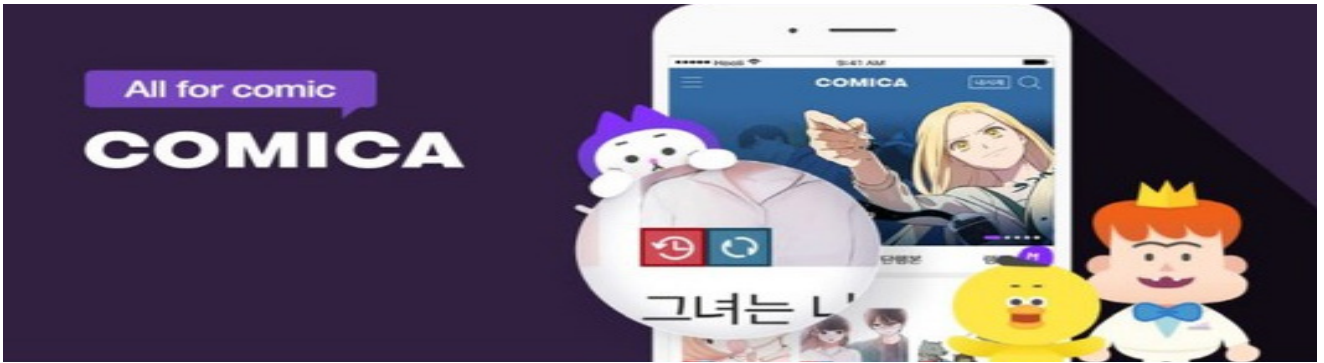
- 팡스카이가 '형님모바일'과 '오빠모바일'로 '무협' 모바일게임이라는 틈새시장을 공략, 동 장르에서 확실한 1위 자리를 선점-팡스카이(대표 지헌민)는 자사가 구글스토어와 원스토어에서 서비스중인 '형님모바일'이 구글플레이 매출 기준, '무협 모바일게임' 장르에서 1위를 차지
- 출시된 '형님모바일'은 '대항제M'과 더불어 팡스카이 모바일게임을 대표하는 '오빠모바일'의 뒤를 잇는 튀는 네이밍의 정통 무협 MMORPG-형님모바일은 출시 이후 원스토어 무료게임 베스트 1위, 매출 8위를 기록했고, 구글스토어에서는 카테고리 1위, 전체 무료게임은 2위를 기록했으며, 10일 기준 구글 게임매출 순위는 34위를 기록 중
- 형님모바일은 이미 해외에서 2개월째 매출 탑5를 유지한 바 있어 국내에서의 호성적이 기대됐던 타이틀
- 형님모바일은 만화가계에서 무협지를 읽으며 무협의 풍미를 누리던 그 시절의 '형님'들이 가장 큰 고객이지만 손쉽게 즐길 수 있어 젊은 층에게도 인기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과 중국어교육 지원 MOU체결

■ 취약계층 아동에 약 18억원 규모 중국어 강의 지원

- 한국보육진흥원 드림스타트사업지원단(단장 조용남)과 (주)문정아중국어(문정아 소장)는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아동에게 중국어 온라인 교육 무료지원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
- 드림스타트 사업은 한국보육진흥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위탁받아, 취약계층 아동(0~12세)을 대상으로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을 통해 빈곤에서 탈출할 수 있도록 잠재적인 능력을 키워주는 사업으로 현재 전국 229개 모든 시·군·구에서 운영
- 업무협약은 ▲전국 229개 시·군·구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 추천 ▲교육 지원일정 체계적 관리 등의 전반적인 운영지원을 사업단이 제공하고, 문정아중국어는 드림스타트 대상 아동(월 최대 500명)에게 중국어 온라인 교육 수강권을 지원한다는 내용
- 이번 MOU를 통해 문정아중국어는 유아와 아동을 대상으로 개발된 맞춤 중국어 교육 콘텐츠인 키즈패스(12개월)를 1년간(월 500명) 최대 6000명에게 제공
→ 약 18억 원 정도를 취약계층에 지원 예정



SK브로드밴드, 코미카IP 기반 영상 제작 MOU 체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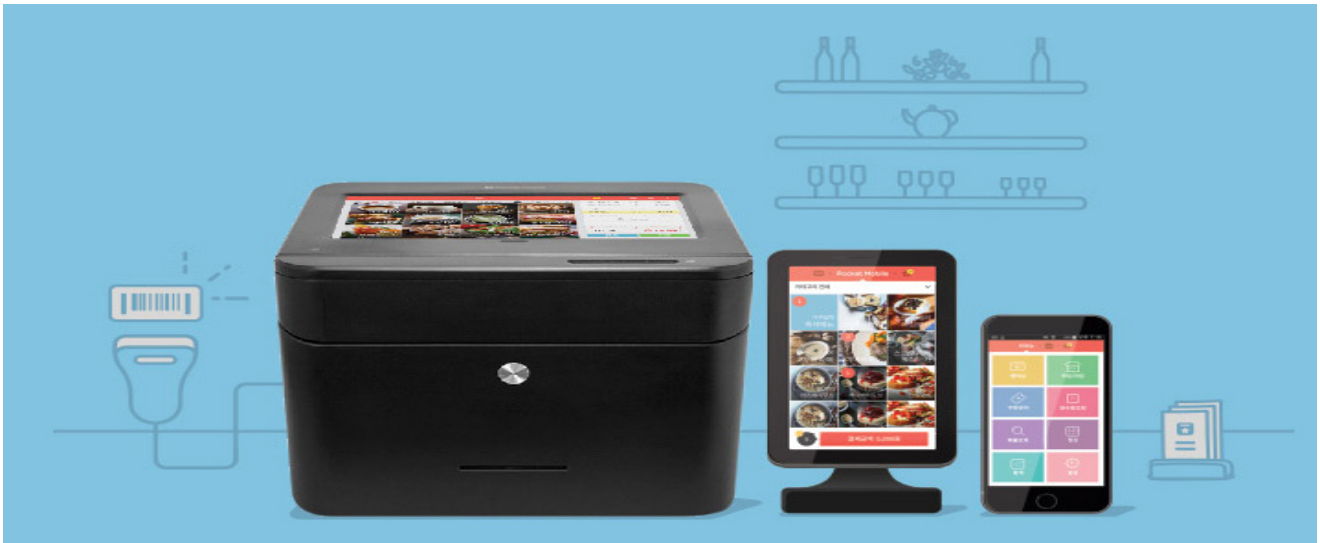
■ 코미카 웹툰, SK 브로드밴드가 영상 제작

- 파노라마엔터테인먼트(대표 김영욱)와 SK브로드밴드(이하 SKB)는 지난 4일 코미카 웹툰을 원작으로 한 영상 콘텐츠 제작에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
- 코미카에서 작품성을 인정받은 웹툰을 중심으로 영상화
- 코미카는 파노라마의 자회사로 서사 구조가 명확한 장르물(특정 장르의 속성이 두드러져 스토리 전개에 그 속성이 온전히 반영되는 작품) 위주의 웹툰을 서비스
- 이번 협약을 통해 파노라마는 SKB에 웹툰 IP를 공급하게 됨과 동시에 SKB가 최근 주력하고 있는 오리지널 영상 콘텐츠의 제작사로 참여
- 영상 제작에 투입되는 파노라마 영상사업부문은 지상파 3사 및 CJ E&M 계열의 방송사에서 다수의 프로그램 제작 경험을 가진 전문 프로듀서들과 영화, 드라마 등 다양한 영상 사업에 고른 경험을 가진 전문가들이 소속된 집단
- 파노라마는 코미카 플랫폼에서 조회수 등 성과가 좋은 웹툰 뿐만 아니라 영상화에 적합한 서사적 완성도를 갖춘 웹툰 또한 선정해 SKB와 영상화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
 - 이는 유명 웹툰 작품 위주로 영상화가 시도되던 기존 사례와 차별화
- 파노라마와 SKB의 첫 영상화 프로젝트로 결정된 '회사를 관두는 최고의 순간'(이하 회관순)은 작품 기획 단계에서부터 영상화를 목표로 제작된 웹툰으로 트랜스미디어 전략의 첫 단계인 '코미카 웹툰 IP의 자체 영상화'를 실현하는 첫 사례
- 기존에는 찾아볼 수 없었던 스토리 전개와 영상화에 적합한 작품성을 가진 웹툰이 다양하게 등장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는 영상 사업 분야에서 웹툰이 좋은 원작 콘텐츠로 떠오르고 있음



시큐리티플랫폼, 초경량 보안 솔루션 출시

- 시큐리티플랫폼, IoT 초경량 저전력 저가격 단말 보안솔루션 개발
- IoT 보안솔루션 개발기업 시큐리티플랫폼(대표 황수익)이 IoT 전용망의 초경량 저전력 저가격 단말을 해킹과 악성코드 오염으로부터 방어하는 솔루션을 개발
- 사람이 직접 개입하지 않는 IoT 단말이 해킹이나 악성코드에 오염되면 전송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좀비화 돼 오작동하거나 타 시스템을 공격하는 등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상황에서 IoT 전용망의 최말단까지 불법복제, 펌웨어 위변조 그리고 데이터 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하는 솔루션이 나온 것
- 이번에 로라 얼라이언스 인증을 받은 엑시오-빌더 로라 개발키트(Axio-Builder LoRa Dev Kit)는 초저전력의 ARM Cortex-M0 프로세서와 보안 엔진이 내장된 이더블유비엠(eWBM)사의 시스템온칩(SoC)으로 완성된 보드와 로라(LoRa) 통신 트랜시버로 구성
- 하드웨어 기반 보안기술을 통해 논리적으로 해킹이 불가능하도록 구현되며 로라 통신 규격상의 암호화를 하드웨어 기반으로 처리하고 디바이스 고유의 키(Device Unique Key: DUK)를 이용해 중요 정보를 암호화해 저장함으로써 노출을 방지
- 이 제품으로 로라 단말이나 모듈을 제작하면 단 대 단(End to End) 보안뿐 아니라 단말 및 모듈 자체의 해킹도 원천 봉쇄해 기존 다른 어떤 통신 수단보다도 보안성을 강화
- 하드웨어 보안기술은 초저가 및 초경량의 특징을 갖는 IoT 보안의 가장 핵심적인 기술이며 순수 국내 기술로 최초의 상용 솔루션을 내놓았다는 데에 의미



포켓모바일 서비스 라이선스와 제품의 패키지 수출 성공

■ 국내 최초 서비스 라이선스와 제품 묶음 패키지 수출 성공

- 대상 : 홍콩 릭틴센츄리그룹
- 내용 :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진출을 위한 라이선스 및 제품 수출
- 규모 : 총 150만달러
- 기타협약 : 10월경 조인트벤처 설립

■ 수출 경쟁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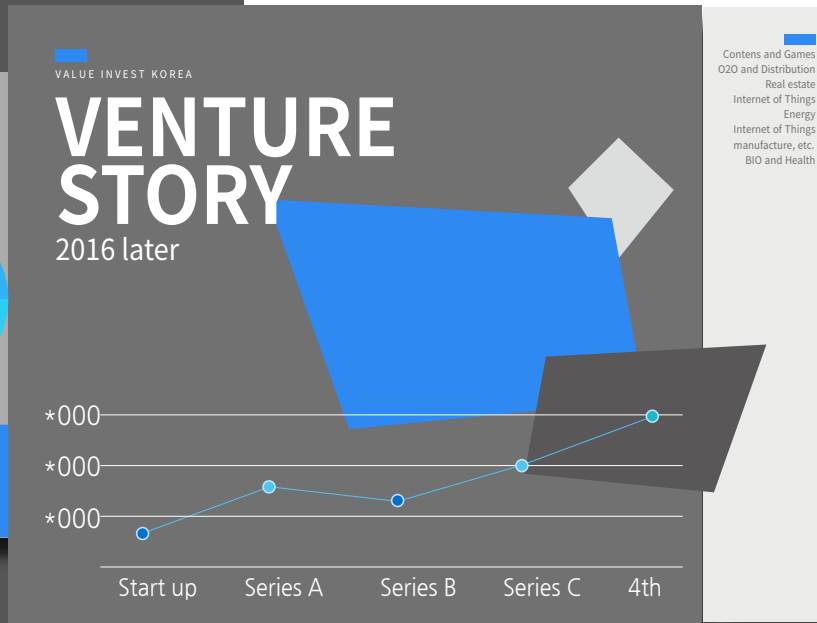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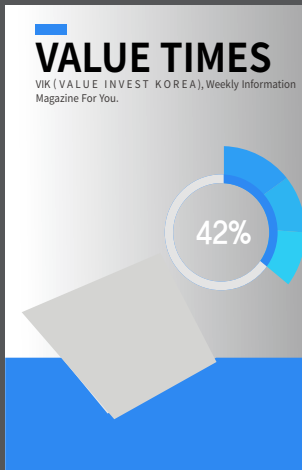
- 홍콩 현지서비스의 기능통합되지 않은 불편함 존재
 - 통합 유통 결제서비스의 범용성과 편의성으로 현지 경쟁력 확보
- 현재 릭틴센츄리그룹이 마카오 내 맥도널드, KFC, 세븐일레븐 및 레스토랑 프랜차이즈 기업들과 서비스 공급 협의 중

■ 릭틴센츄리그룹

- 홍콩소재의 중국기업
- 홍콩, 마카오, 싱가포르 2000여개 기업에 비자발급과 계좌오픈, 회계 서비스 제공
- 빅레스토랑 프랜차이즈 등 운영
- O2O 기반의 강력한 현지 네트워크 보유

VALUE INVEST KOREA VENTURE STORY

제8회 2017.08.16



- "새 먹거리 찾자"...중소·중견기업, 투자사 설립 '러시'
- 벤처투자로 보는 뜨는 스타트업은?



벤처 캐피탈

고도의 기술력을 갖추고 있으며 잠재성도 있으나 아직 경영기반이 약하고 일반 금융기관으로는 위험부담이 커서 융자하기 어려운 벤처 비즈니스에 대해 주식취득 등을 통하여 투자하는 기업 또는 이와 같은 기업의 자본 그 자체를 말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회사들은 투자한 기업의 주식공개를 통한 자본 이익(capital gain)으로 수익을 올리는 것이 일반적이다.

우리나라는 1985년에 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 따라 벤처캐피탈회사가 설립되어 벤처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중소·중견기업, 투자사 설립 '러시'

"새 먹거리 찾자"

- VC 설립 규제가 완화되면서 새로운 먹거리를 발굴하려는 중소·중견기업들이 잇따라 투자회사를 설립
- 코스닥 상장사 메디톡스는 메디톡스벤처투자라는 투자법인을 설립, 자본금은 101억원으로 정현호 메디톡스 사장이 대표
→ 창업투자회사 등록을 마친 뒤 기존 메디톡스 사업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바이오 분야 스타트업(신생 벤처기업) 등에 투자할 계획
- 부산 지역에서 신발을 제조하는 유가증권시장 상장사 화승인더스트리가 에이치인베스트먼트를 설립
→ 주로 부산 등 인근 지역의 유망 벤처를 찾아 투자하는 방안을 검토 중
- 에이치엘비생명과학도 자본금 50억원으로 LSK인베스트먼트를 설립
- 게임 분야 상장사인 파티게임즈도 지난해 창투사인 스프링캠프를 설립, 네이버 자회사인 스노우가 올해 스프링캠프 지분을 사들여 최대주주로 올라섰다.
- 중소·중견기업들의 잇따른 VC 설립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기 위한 행보로서 투자하는 기업의 가치를 올려 기존 사업과 시너지를 꾀할 수 있다는 설명
- VC 설립 관련 규제가 완화되고 있는 점도 한몫하고 있다는 분석으로 투자업계 관계자는 자본금이 많지 않은 회사들도 VC를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올 하반기부터 기업들의 VC 설립이 더욱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



Start up Company

스타트업 컴퍼니(startup company) 또는 스타트업(startup)은 설립한 지 오래되지 않은 신생 벤처기업을 뜻한다.

미국 실리콘밸리에서 생겨난 용어로서, 혁신적 기술과 아이디어를 보유한 설립된 지 얼마되지 않은 창업 기업이다. 자체적인 비즈니스모델을 가지고 있는 작은 그룹이나 프로젝트성 회사이다.

이러한 회사들은 대부분 신생이며,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하거나 새로운 시장을 찾아나서는 데 주력한다.

스타트업이란 용어는 닷컴 버블 이후 함께 등장하는데, 당시에는 닷컴 회사들을 지칭하는 의미로 쓰였다.

벤처투자로 보는 스타트업

Start up Company

- 지난 1년간 스타트업계에서 가장 주목받는 분야는 ‘이커머스, 핀테크, 헬스케어’로 이들 항목은 미래먹거리로 꼽히는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로 향후 투자가 더 늘어날 것으로 기대
- 스타트업얼라이언스가 시리즈A(10억 원 이상)규모 투자를 받은 스타트업을 종합한 결과 최근 1년간 전체 13개 분야에서 126개 기업이 투자를 유치
- 이커머스 분야는 지난해 7월 기준 3개 기업 투자 유치에서 올해 7월에는 30개(누적)로 크게 증가. 핀테크 분야는 지난해 2개 기업에서 23개 기업까지 늘어났으며, 헬스케어는 1개 기업에서 8개 기업으로 증가.
- 단일 기업으로는 이커머스기업 ‘미미박스’가 가장 큰 투자를 유치. 화장품제조·유통커머스가 주력인 미미박스는 지난해 굿워터캐피탈, 포메이션그룹, 알토스벤처스, 카우보이벤처스 등 글로벌 벤처투자사에서 1430억원을 투자유치.
- 배달 온·오프라인연계(O2O)서비스인 배달의 민족, 웹툰서비스를 선보이는 레진코믹스 등이 각각 570억원, 500억원으로 2.3위를 기록
- 지난해까지 전체적으로 O2O분야에서 많은 투자 유치가 있었지만 최근 이러한 흐름이 이커머스, 헬스케어 등으로 다양화 되고 있으며 기술기반 서비스 투자가 늘어나는 것은 세계적인 흐름과 부합할 뿐 아니라 우리 스타트업 생태계에도 좋은 변화
- 실제 스타트업 중심지인 미국에서는 지난해 인터넷, 헬스케어, 모바일 분야가 가장 많은 투자액과 거래건수를 기록
- 아시아에서도 중국 앤트파이낸셜, 루팍스, 베이징웨이잉 테크놀로지 등 핀테크, 이커머스 분야 스타트업이 가장 많은 투자를 받은 기업 10위안에 랭크